

# 현대로어의 통신적언어활동에서 언어작용 및 주제관리와 주도권문제

김 강 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과학부문에서는 당면하여 응용사회학을 비롯하여 우리의 혁명실천에 필요한 분야들을 우리 식으로 개척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리며 점차 그 범위를 넓혀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우리의 사회과학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 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단행본 16 페이지)

응용사회학을 비롯하여 우리의 혁명실천에 필요한 분야들을 우리 식으로 개척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리는것은 사회과학부문에 나서는 당면한 과업의 하나이다.

사회과학으로서의 언어학의 응용분야로 되는 통신언어학은 혁명과 건설의 중요한 무기인 언어를 수단으로 하는 사람들의 통신적언어활동에 대한 리론인것으로 하여 언어실천에서 절실히 필요한 연구대상으로 된다.

이 글에서는 현대로어의 통신적언어활동의 기초에 놓여있는 언어작용문제와 주제관리, 주도권문제에 대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들은 고립적으로 살며 생활하는것이 아니라 사회속에서 언어를 수단으로 하여 서로 접촉하고 교제하면서 생활하고있으며 사회속에서 서로 리해하고 협조하면서 집단생활을 하고있다.

교제의 수단이며 사상교환의 수단으로서의 언어의 기능 즉 언어의 통신적기능을 떠나서는 사람들의 모든 생활, 모든 활동이란 생각할수 없다.

사회적집단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 어떤것이나 모두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다.

일상생활의 언어교제활동에서는 의사를 주고받는 과정에 무엇을 전달하거나 부탁도 하며 그사이에 있었던 일로부터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이때에는 미리 계획된 말을 하는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야기내용에서 특별히 설정된 주제가 없고 주도권문제도 제기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방외에 이야기에 끼여들지 않고 듣기만 하는 제3자가 있을수도 있다.

그러나 언어활동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야기내용은 계획되고 작전이 이루어지며 그 결과를 예견하는것과 같은 일정한 틀이 형성된다.

그러한 언어활동은 담화, 회담 등과 같은것이다. 특히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가지 주제의 대화 즉 통신적언어교제에서 그것이 뚜렷해지는데 여기에서는 주제관리와 주도권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제기된다.

다른 한편 언어활동에는 말로 진행되는 것과 함께 글로 진행되는 통신적언어활동도 있다. 글로 진행되는 언어활동에서도 수준상에서 낮은 급과 높은 급이 있는데 낮은 급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쪽지글이나 편지 등을 들수 있고 높은 급에서는 축전, 서신, 공동보도, 발표문, 성명 등을 들수 있다. 이러한 높은 급의 글에서는 주제가 명백하고 글의 종류에 따라 주도권문제도 각이하게 제기된다.

말과 글의 통신적언어활동은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기본은 통신적언어활동에 영향을 주는 언어작용과 주제관리, 주도권문제이다. 물론 주제관리와 주도권문제는 언어작용속에서 이루어진다.

통신적언어활동과정에 사람들이 어떤 언어적표현을 쓰는가 하는데 따라 언어작

용이 더 강화될수도 있고 약화되어 인식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주제관리의 주인이 달라질수도 있으며 주도권이 전환될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언어행위과정에는 그 진행과정을 조종하고 결과를 예측할수 있게 하는 요인이 작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언어작용이다.

언어작용은 통신적언어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과 언어활동과정에 주는 영향에 따라 사회적인식언어작용과 인식구조변화언어작용으로 갈라볼수 있다.

사회적인식언어작용이라고 할 때에는 풍부한 언어자원을 선택리용하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언어작용을 말한다. 그것은 인식규범적용과 그 파파에 의한 언어작용효과로 나타난다.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언어자원은 보다 발전풍부화되며 사람들의 통신적언어활동은 통신적교제의 목적과 통신적교제의 정황에 맞게 보다 적중하고 합리적인 언어적 표현들로 다양해지게 된다.

이러한 표현들은 통신적언어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지적수준과 준비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어디까지나 사회적영향의 작용을 받기마련이다.

사회적으로 이미 인식되어있는 언어 및 언어사용규범을 심히 위반하거나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인식수준에서 차이가 있을 때, 그들의 언어가 다를 때에는 의사가 통할수 없고 언어행위는 중단되기까지 한다. 특히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새로 생겨나는 사물현상의 명명들과 가치관, 새로운 사고방식 등은 이미 있던 언어적표현에 새로운 의미를 첨부하여 사람들의 교제활동을 보다 표현성이 짙은 형상적수단들이 들어있는 교제활동으로 되게 하고있다.

례 1: (A는 대학에 인차 인터넷교실이 열리게 되어있다는것을 알고있다.)

A.- Ну что, открыли Интернет?

Б - Нет. Пока нет. Это же Интер-Нет. Вот если бы Интер-Да...

(- 그래, 인터넷교실이 열렸나?

-아니, 아직은 안열렸어. 인터-네트(아니)여서 그럴겠지. 만일 인터-다(예)라면...

실례에서는 영어의 Internet 를 로어로 옮긴 Интернет 의 뒤부분 нет 를 가지고 그의 부정적의미에 대비되는 Интер-Да 로 아직은 사회적으로 인식되어있지 않는 표현을 씀으로써 언어활동에서 장애가 조성되지만 작용의 표현적효과성은 크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에서 서술한 대화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Интернет (인터넷)의 뒤부분인 нет(아니)로 재치있게 교체수법을 리용함으로써 인터넷교실은 인터-다(예)라면 문을 열었겠는데 하는 일종의 비웃음과 조소가 비껴있는 표현적효과를 나타내고있다.

례 2: A. - Ты все еще пользуешься итальянской приправой?

Б. - Больше нет!

A. - Нет?

Б. - Я покупаю новую, улучшенную итальянскую приправу!

(-넌 이팔리야제 조미료를 계속 쓰니?

-더는 쓰지 않겠어!

-안쓴다구?

-난 개량된 새 이팔리야제 조미료를 사겠어!)

실례에서 대화자의 한사람인 Б의 말에서 쓰인 больше нет가 일반적인 사회적인식에서는 량적개념을 표현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의미로 쓰임으로써 비정상적인 대화를 산생시켰고 일종의 부정적평가의 뜻빛갈도 동시에 나타내고있다.

우의 두가지 실례에서 주제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 의하여 공동으로 관리되었고 두 경우에 주도권은 오히려 듣는

사람인 B가 권것으로 된다.

인식구조변화언어작용이라고 할 때 통신적언어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주제관리, 주도권고수에 영향을 주는 언어작용을 말한다.

통신적언어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이건 듣는 사람이건 다같이 자기의 의지를 언어로 표현한다. 의지표현은 주제관리와 주도권고수로 향한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주제도 관리하고 주도권도 고수하려고 한다.

말을 하는 사람이 주제를 혼자 관리하면서 주도권을 쥐고 듣는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강요한다면 대화는 중단된다. 그러나 듣는 사람이 충분히 납득할수 있도록 주제를 넘겨주면서 리성과 감정에 호소를 하거나 청원하는 여러가지 언어적표현을 쓰면 그것은 듣는 사람의 행동을 부추길수도 있다. 그러나 명백한것은 이때에 주도권은 고수되어야 한다는것이다.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의지의 변화는 곧 주제관리와 주도권에 영향을 준다. 그리하여 주제관리와 주도권에서는 선택이라는 공간이 생기게 된다.

레: A.- Алло! Добрый день!  
Позовите, пожалуйста,  
Крестину.

B. - Это я. Привет, Маша.

A.- Крестина, у меня есть билет в Мариинский театр на «Евгения Онегина». Пойдѣшь со мной?

B. -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Только... Я не знаю, что надеть. Ты же знаешь, я всегда ношу джинсы и свитера. А ведь в таком виде в театр не пойдѣшь!

A.- Да, в джинсах ходить в театр не принято. Но у тебя ведь есть красивые серые брюки и нарядная белая блузка. Помнишь, ты была в ней в гостях у Максима?

B. - О, точно. Тем более, что недавно я купила очень красивые туфли. Они очень подойдут к этим брюкам.

A.- Ну, ладно. Встречаемся завтра в 6.30 около театра.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찌나를 좀 바꾸어주십시오.

-마샤야, 나야 나. 잘 있었니.

-애. 나한테 마리아극장에서 하는 《예브게니 오네긴》표가 있어. 나하고 가지 않을랜?

-그럼 가야지. 그런데... 난 무슨 옷을 입을가. 난 항상 진바지와 썬타를 입고다닌다는걸 너도 알지 않니. 극장에 그 차림으로야 못가지 않니.

-그럼. 진바지차림으로야 극장에 가지 못하지. 참 너에게 고운 회색갈바지와 화려한 흰 브라우스가 있지 않니. 생각안나니, 너 그 옷을 입고 막썬네 집에 갔겠지않니?

-웁아. 그렇지. 참 얼마전에 고운 구두를 샀어. 그 신발이 바지에 꼭 어울릴거야.

- 좋아. 래일 6시 30분에 극장옆에서 만나자.)

우의 실례에서는 극장구경을 가자는 마샤의 제기에 크리스찌나가 입고갈 옷이 걸려 망설이는데 마샤가 막썬네 집에 갔을 때 크리스찌나가 입고갔던 고운 바지와 화려한 흰 브라우스에 대하여 상기시켜주었다.

이 대화에서는 극장에 갈수 있는 충분

---

한 조건과 관련한 언어적표현들을 잘 선택하여 씌으로써 마샤는 극장에 함께 가자는 목적도 달성하였고 교제과정자체에서 실패를 역전시켜 좋은 결과에로 이끌어 나갈수 있었다. 다시말하여 마샤의 교제목적 즉 주제관리와 주도권고수는 성공의 결과에로 이어졌다.

언어활동에 대한 언어작용에는 이외에도 교제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파괴하는 언어작용, 상대방의 의향을 예견도 할수 있

게 하는 언어작용 등 여러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통신적언어활동에서는 정황에 따라 그것을 리용할수 있다.

우리는 사람들의 통신적언어활동의 기초에 놓이는 언어작용문제, 주제관리 그리고 주도권고수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이론실천적연구를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외국어언어활동을 보다 다양하고 능숙하게 해나가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할것이다.